김성한의 남구 멘토에 길을 묻다

⑩ 김 철 부산고려병원 이사장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1등 병원 초격차의 비결은 원리원칙 준수"

부산고려병원 김철 이사장과 부인 황은경 상임이사(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신관병원 11층 야외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동갑내기 의사인 이들 부부는 30년 가까이 지금의 고려병원을 만드는데 힘을 쏟았다.

지난 6월초 필자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다. 곧바로 MRI검사를 했고 다행히 수술은 필요치 않은 '요추부 염좌(허리쪽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거나 파열된 병증)'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통증으로 마네킹처럼 병상에 누워 사흘간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이때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처음 경험했다. 병동에는 오로지 의료진과 환자만이 상주했고 그 덕에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평온한 병동에서 어느 산사의 템플스테이에 온 듯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 3일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호캉스(Hospital+Vacance)'였다.

필자가 '호캉스'를 경험한 곳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최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대연동 부산고려병원이다. 늦은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8월 16일, 고려병원 신관 10층 김철 이사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맨 구석진 곳에 위치한 집무실은 작고 단출했다. "대고려병원의 병원장 집무실이 너무 작지 않느냐"고 농담을 건네자 김 이사장은 "나도 직원들한테 속아 여기에 들어왔다"며 너털웃음으로 답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5년 부울경 최초 도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이 한 팀이 돼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경제·의료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15년 시작됐다. 하루 2만원 추가 비용이 들지만 2022년 6월말 현재 전국 594개 병원에서 시행 중이고 계속 확산 추세다. 남구는 현재 고려병원을 포함해 3곳이 이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고려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초기 혼선으로 시행 1년 만에 간호인력 절반이 그만두는 홍역도 치렀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신해 밀어붙였다. 이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도병원'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7년 연속 지정됐다. 그동안 부울경 내 60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고려병원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첫해 간호인력 절반 퇴사 불구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확신

고려병원은 김 이사장의 부친인 김진홍옹이 1979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문을 열었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마친 김 이사장이 1996년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정형외과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일월드컵을 앞둔 2002년 4월 공익성이 강조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문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어 2005년 대연동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면서 병원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고려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첫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3기 연속 획득과 관절전문병원 4기 연속 지정이라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1등 병원'으로 자리를 굳혔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 4월 기존 병원 건물과 이어지는 지상 11층 규모의 신관도 준공했다. 신관 건립으로 물리적 공간이 크게 늘었지만 의료기관의 외형적 지표인 병상수는 거의 늘리지 않고, 대신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 확충에 집중했다. 병원은 현재 210병상에 전문의 22명 등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적 명성으로 부산 외에 서울 등 전국에서 연간 19만명이 넘는 관절·척추 질환 환자들이 찾고 있다. "개금에서 남구로 이전한 뒤 병원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다"는 게 김 이사장의 평가다.

서울 등 전국서 환자 방문 척추·관절 1등 병원 자부

고려병원이 일군 '초격차'의 비결은 뭘까. 김 이사장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했고 직원들은 "이사장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서로 공을 미뤘다. '아름다운 논쟁'은 옆에 있던 송주연 간호부장이 정리했다. "몇 해 전 이사장님과 가까운 이른바 'VVIP환자'가 입원했는데 병원 규정에 어긋난 무리한 요구를 해 직원들이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사장님이 저희에게 '매뉴얼대로 하라'며 힘을 실어 줘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남구 이전 이후 10배 성장 장학기금 등 지역환원 관심

근래 김 이사장은 병원 성장의 근간이 되어준 남구의 지역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새마을연합회 남구지회장을 맡았고 2020년 2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인 부산남구문화원 4대 원장도 겸하고 있다. 또 남구청과 지역인사들이 기금을 모아 출범한 (재)남구장학회에 5000만원 기금 출연도 약정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기들 힘들어도 좋아서 하는걸요"

9년간 위탁가정 활동 권유미 씨 장관상
길면 4년 짧게는 6개월, 아기 5명 양육

용호동에 사는 권유미(43)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유독 아기 민아(가명) 사진이 가득하다. 태어난 지 50일, 100일 기념사진들도 보인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정겨운 4남매의 가족사진은 한눈에 봐도 화목한 다자녀 가정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아직 돌이 안 된 막내 민아는 유미씨의 친딸이 아니다.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위탁아동이다. 지난해 가을 세상에 나온 지 2주 만에 유미씨 가정에 맡겨졌다. 민아는 유미씨가 '가슴으로 낳은' 다섯 번째 아기다.

평소 입양에 관심이 있던 유미씨 부부는 우연히 가정위탁제도를 알게 되면서 2013년 위탁가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어린 3남매를 키우고 있어 큰 결심이 필요했다. 민아처럼 육아가 어려운 미숙아는 대부분의 위탁가정에서 기피해 5명의 아기들이 유미씨 가정을 스쳐갔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간 친부모의 마음으로 키웠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울 때면 잠 못 자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특히 유난히 몸이 약한 민아는 대학병원을 오가며 건강을 살폈고 덕분에 여느 아기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르다. 친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양육한 뒤 친가정의 가족기능이 회복되면 아이는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탁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일부 지원되지만 양육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정위탁은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는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다. 몇 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슴을 파고드는 아이들과의 이별은 매번 가슴 먹먹하지만 그래도 만남이 주는 행복감으로 이겨내고 있다.

유미씨가 오랜 시간 위탁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던 데는 가족의 도움이 컸다. 특히 남편 김진우(51)씨는 목욕과 식사 준비를 도맡는 등 육아 전문가 수준으로 양육을 돕고 어느덧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성장한 3남매도 위탁아동을 친동생처럼 보살피고 있다.

"근래 아이들이 다 커 외지에서 생활해 사실상 독박육아로 힘은 들지만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9년간 보낸 위탁가정의 소회치고는 싱겁지만 다시 생각하면 가장 진솔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유미씨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가정위탁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위탁가정을 연중 모집한다. 위탁가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가정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758-8801 www.busan.sc.or.kr